

아르헨티나의 황열병과 허드슨(W. H. Hudson)의 『랄프 헨 Ralph Herne』

박병규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박병규(2020), 「아르헨티나의 황열병과 허드슨(W. H. Hudson)의 『랄프 헨 Ralph Herne』」,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1(3), 143-162.

초록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현재 우리의 생활과 삶의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유사한 대규모 감염병 사태를 다룬 문학 작품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 이 글에서는 1871년 아르헨티나의 황열 사태를 다룬 W. H. 허드슨의 작품 『랄프 헨』의 텍스트를 분석했다.

이 작품에서 허드슨은 황열 확산의 원인을 제1차 세계화 시대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환경 오염이라고 지목하고 있으며, 랄프 헨이라는 영국인 의사의 헌신적인 활동을 묘사함으로써 황열에 맞서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을 기리고 있다.

문명과 진보에 대해 비판적인 허드슨은 아르헨티나의 황열을 대자연의 분노라는 유사 환경주의적 관점으로 파악한다. 그러면서도 허드슨은 숙명론으로 경도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는 인류가 감염병과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진화했다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핵심어 황열, 대자연, 허드슨, 랄프 헨, 팬데믹, 아르헨티나

I. 서론

철학자 한병철은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고 말했는데(한병철 2012, 11), 이런 통찰을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에 투사하면 ‘시대마다 고유한 전염병이 있다’고 바꿔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의 예로, 중남미에서는 이른바 ‘대항해 시대’의 막이 오른 16세기 초엽에 천연두가 횡행했다. 서구 정복자의 숨결에 붙어온 천연두는, 이 병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던 아메리카¹⁾ 원주민에게는 불가항력의 대재앙과 다를 바가 없었으며,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하여 아메리카 정복의 숨은 공로자 역할을 했다.

아메리카와 서구의 접촉이 남긴 의학적 상흔이 천연두라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접촉이 남긴 의학적 상흔은 황열(fiebre amarilla)이었다.²⁾ 아메리카에서 황열이 처음으로 발생한 때는 1647년이다. 이 해 카리브해의 작은 섬 바베이도스에서 시작된 황열은 마르티니크, 세인트루시아, 과들루프, 쿠바를 거쳐 1649년에는 멕시코의 유카탄반도에 상륙했다. 당시 바베이도스는 영국 식민지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하여 사탕수수를 재배했는데, 황열 또한 이 노예무역의 경로를 따라 아프리카에서 카리브해로 들어오고, 이후에는 노예무역선이 정박하는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항구로 퍼져 적잖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황열은 19세기 중반까지 아메리카에서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부상할 정도의 규모로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이 질병은 모기, 정확하게는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라는 매개체로 전파되기 때문에 기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는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초여름과 늦여름에는 황열이 기승을 부리다가도 기온이 하강하고 계절이 바뀌면 급속도로 사라졌다. 둘째는 노예로 끌려와 카

1) 이 글에서는 카리브해와 아메리카 대륙을 두루 이르는 말로 ‘아메리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황열의 기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대다수 학자는 아프리카 기원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노게이라 등 일부 학자는 아메리카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한다.(Nogueira 2009, 1)

리브해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아프리카인은 아메리카인이나 유럽인이나 아시아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황열에 대한 면역력이 강했다. 황열은 경증과 중증으로 나뉘는데, 아프리카인은 경증을 앓는 사람이 많았다. 마지막은 인구 밀집도이다. 당시만 해도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아서 인구 밀집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고, 또 집단으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매개체인 모기의 활동 반경을 넘어서만큼 거주지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로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아메리카에서 황열이 발생해도 대규모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아메리카에서는 황열이 두 번 대규모로 발생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글과 관련이 있는 1871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경우이다.³⁾ 1870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황열이 발생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871년에는 이상 고온으로 1월 27일부터 6월 21일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대규모로 창궐했다.⁴⁾ 한창 기승을 부릴 때는 하루 희생자가 500명을 넘어서 차카리타(Chacarita) 공동묘지를 새로 조성했고, 당시 대통령이던 도밍고 사르미엔토를 비롯하여 시민 약 5만 명이 황열을 피해 도시를 빠져나가는 등 아르헨티나 사회 전체가 공포에 떨었다. 희생자 수는 출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영국 일간지 『스탠다드 The Standard』는 26,600명으로 추산하는데, 과장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의학 잡지 『내·외과 Revista Médico-Quirúrgica』에 따르면 13,614명이고, 1871년 전반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부공동묘지와 차카리타 공동묘지에 매장된 시신 기준으로 14,467명이다 (Pérgola 2014, 49).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인구가 어림잡아 200,000명이었으므로⁵⁾ 희생자 수를 보수적으로 잡아 13,614명으로 계산해도 약 6개월 만에

3) 다른 한 경우는, 익히 알고 있듯이, 1881년 파나마 운하 건설 현장이다. 중국인 등 운하 건설에 동원된 인부들은 황열로 말라리아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1882년에 125명이 황열에 희생되었고, 다음 해는 희생자가 두 배로 늘어났으며, 1885년에는 약 1,300명이 목숨을 잃었다. [...] 1886년에는 프랑스 기술자 30명이 도착했는데, 한 달 만에 13명이 죽었다. 치명률은 1,000명당 179명으로 추산한다.” (Kohn 2008, 292)

4)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에서 가을에 해당한다.

5) 1869년 처음으로 실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구는 177,787명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구 6.8%가 감소한 것이다.

1871년 당시만 하더라도 황열은 백신은커녕 이 질병의 매개체가 모기라는 사실도 모르던 때여서⁶⁾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은 반년 가까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이었는에도 아르헨티나 문학에서 1871년 황열 사태를 다룬 작품은 희소하다. 필자가 아는 바로는, 1923년에 출판된 허드슨(W. H. Hudson)의 중편 소설 『랄프 헨 *Ralph Henre*』,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1928년에 출판한 『아르헨티나인의 언어 *El idioma de los argentinos*』에 실린 시 작품 「라 차카리타 *La Chacarita*」, 2015년에 출간한 디에고 무시오(Diego Muzzio)의 중편 소설집 『비가시 영역 *Las esferas invisibles*』이 전부이다. 그런데 보르헤스는 시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그 죽음을 직시할 수 없었다”라면서 황열로 스러진 사람들의 잊혀진 죽음을 애도했고(Borges 1974, 90), 디에고 무시오의 작품집에 실린 세 편의 중편은 모두 괴기소설(*novela gótica*)로 로사스 정권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작품이므로 1871년 황열 사태를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은 『랄프 헨』이 유일하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랄프 헨』은 잊혀진 작품이다. 문학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⁷⁾ 그런데 현재의 코로나 사태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작품을 들춰내는 힘이 있다. 조금은 구시대적이고 어설픈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중단된 일상, 감염과 죽음에 대한 공포, 인간의 대응과 극복을 다룬 서사에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현재의 상황에 전적으로

었다. 이 중에서 92,449명(52%)이 외국인이었다. 당시는 국내외적 인구 유입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구가 급증하던 시기여서 1887년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구는 433,375명이었고, 이 중 229,689명(53%)이 외국인이었다.(Torricelli 2017, 30)

6) 황열의 전염 매체가 모기라는 사실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1881년에 쿠바 의사 카를로스 핀라이(Carlos Finlay)가 밝혀냈다.

7) 일레로, 데이비드 밀러는 허드슨의 소설을 논하면서 『랄프 헨』을 제외했다. “습작기 작품치고는 뛰어나지만”(Miller, 1990, p. 87) 실패한 작품이라는 것이 배제 이유이다. 사실 허드슨 본인도 1904년 6월 가넷(Garnett)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봐도 『랄프 헨』의 전반부가 너무 어설픈고 -젊은이가 외국으로 나간 젊은이가 겪는 여러 가지 일과 연애담이라는 평범한 이야기라서 그렇다- 지루하다 못해 짜증이 날 지경이다.”(Hudson, 1923b, pp. 56-57)

기대어, 작가로서 W. H. 허드슨을 잠시 소개하고, 이어 『앨프 헌』에 나타난 19세기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황, 황열에 맞서 싸우는 인간, 허드슨의 질병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아르헨티나 작가로서 허드슨

허드슨(1841년~1922년)은 출생 국가나 작품 배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아르헨티나 작가라고 할 수 있지만, 집필 언어나 작품 활동 국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영국 작가라고 불러야 타당하다. 아버지 다니엘 허드슨(Daniel Hudson)과 어머니 캐롤리나 김블(Carolina Kimble)은 모두 미국 매사추세츠주 출신으로, 1832년 가산을 모두 정리하여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주(州)에 있는 킬메스(Quilmes) 지방으로 이주했다.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허드슨은 어릴 적부터 외국인 가정교사에게 영어로 수업을 받았다. 허드슨 일가는 가정에서 영어만 사용하고, 교류하는 이웃도 대부분 외국인이었다. 서재에는 약 200권의 책이 있었지만 모두 영어로 된 책이었다(Jurado 1971, 23-24). 이런 성장기 환경과 교육의 영향 때문인지, 허드슨은 청년기부터 영국을 동경했다. 청년 시절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들른 허드슨은 헌책방에서 발견한 18세기 영국 시인 로버트 블룸필드(Robert Bloomfield)의 『농부 소년 *The Farmer's Boy*』을 읽고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 영혼의 조국(my spiritual country)인 영국의 녹색 지대를 시로 차분하게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Hudson 1923c, 275)

몇 페이지 후에도 허드슨은 영국을 “내 열망의 땅”(land of my desire)이라고 재차 강조한다(Hudson 1923c, 278). 이렇듯 진정한 조국을 영국이라고 생각한 허드슨은 서른세 살 나던 1874년에 영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⁸⁾

8) 허드슨이 영국으로 이주한 직접적인 동기에 대하여 전기 작가들은 여러 가지로 추정하면서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스페인어권에서 허드슨을 연구

허드슨은 자연, 특히 아르헨티나의 새에 관심이 많아 1872년에는 영국의 런던 동물 협회 학술지에 “파타고니아 지방의 리오 네그로 새에 대하여”(On the birds of the Río Negro of Patagonia)라는 짧은 글을 발표했다. 작가 이전에 조류 연구자로 영국에 먼저 이름을 알린 것이다. 영국에 이주한 후에는 집필 생활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다. 1885년에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팜파와 가우초 생활을 그린 소설 『영국이 잃어버린 자줏빛 대지 The purple land that England lost』를 출판했는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남미의 카우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우초의 생경한 삶이 영국 독자의 흥미를 일깨우기는 어려웠다. 이후에도 허드슨은 꾸준히 조류 관련 저서, 자서전, 문학사, 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집필하여 총 24권을 출판했는데, 이 가운데 1904년에 출판한 소설 『녹색 거처 Green Mansions』는⁹⁾ 영국 독자에게 사랑을 받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대표작이다.¹⁰⁾ 『녹색 거처』로 문명(文名)을 쌓은 허드슨은 당대의 영국 작가 조셉 콘래드(Joseph Conrad), 커닝헤임 그레이엄(Cunninghame Graham), 버나드 쇼(Bernard Shaw), 토머스 하디(Thomas Hardy), 헨리 제임스(Henry James) 등과 교분을 나누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허드슨 생전에 허드슨이라는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 알리시아 후라도의 말처럼 허드슨은 영국에서도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은 “작가들의 작가”였기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오기는 힘들었을 것이다(Jurado 1971, 126). 이런 허드슨이 아르헨티나에 알려진 계기는 19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

하고, 지속적으로 작품을 번역한 알리시아 후라도는 사랑의 실패와 조류 연구의 심화에 대한 기대감일 것으로 추측하면서도 허드슨이 미국이 아니라 영국을 선택한 점은 의문이 남는다고 얘기한다(Jurado 1971, 67-69).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허드슨이 아르헨티나를 혐오(厭惡)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허드슨은 친구에게 “내 진짜 인생은 팜파를 떠날 때 끝났다”고 고백할 만큼 영국으로 이주한 다음에도 아르헨티나의 자연, 새, 팜파를 그리워했다.

- 9) 허드슨은 이 책의 제목을 성서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에서 따왔기에 녹색의 거처로 옮긴다.
- 10) 이 작품은 허드슨 사후에도 인기가 있어서 라디오 연속극(1937년), 만화(1951년), 영화(1957년)로 제작되었다.

가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아르헨티나 방문이었다. 타고르가 “아마도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산문가는 아르헨티나 작가 W. H. 허드슨이다”라고 평하자 (Lencina 2019, 190) 보르헤스를 비롯한 아르헨티나 작가들은 허드슨의 작품, 특히 『영국이 잃어버린 자줏빛 대지』를 아르헨티나 문학으로 수용하고, 이 작품을 우선적으로 스페인어로 번역했다. 이후에도 허드슨의 작품은 꾸준히 스페인어로 번역되었는데, 『렐프 현』은 2006년 알리시아 후라도의 번역으로 소개되었다.

III. 황열, 대자연의 분노

1. 아르헨티나의 근대화와 황열

W. H. 허드슨의 『렐프 현』은 1888년 1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영국 잡지 『청춘 Youth』에 연재된 소설로, 1923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작품은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분량은 1923년 인쇄본 기준으로 10페이지 내외로 거의 균등하다. 연재소설답게 장마다 이야기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제목을 붙여서 독자의 선이해를 돕고 있으며, 말미에는 독자의 궁금증을 자아내고자 다음 장에서 전개될 이야기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스페인어권에서는 이 작품을 단편(cuento)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분량으로 봐서는 중편(nouvelle)으로 분류해야 적절하다.

이 작품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건너온 영국인 의사 렐프 현의 사랑과 의사로서 헌신을 그리고 있다. 영국에서 숙부의 보살핌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렐프는 영국 식민지로 가려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자 아르헨티나로 건너온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당국이 해외에서 취득한 의사 면허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던 현은 오래전부터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던 영국인 템플 박사(Dr. Temple)의 도움을 받게 되고, 템플 박사의 집을 드나들면서 두 딸 가운데 작은 딸 레티스(Lettice)를 흡모하기에 이른다. 레티스를 연모한 사람은 렐프만이 아니다. 렐프에게는 찰리 웬도버(Charlie Wendover)라는 강력한 연

적이 있다. 레티스의 마음을 얻으려고 경쟁하던 현과 웬도버는 갈등을 겪지만 결국은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고 6주 예정으로 우루과이의 프라일레 무에르토(Fraile Muerto)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합의한다. 출발 당일 아침 조간에서 황열병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읽은 랠프는 여행을 취소하고 웬도버만 우루과이로 떠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남은 랠프는 혼신의 힘을 다해 황열과 싸우다가 자신도 황열에 걸리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한다. 한여름에 한풀 껴있던 황열은 날이 조금 선선해지자 재유행했다. 이때 황열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건강을 되찾은 레티스는 그동안 랠프가 보여준 헌신적인 인간애를 보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여겨 사랑을 고백하고, 두 사람은 결혼에 이르는 것으로 작품은 끝을 맺는다.

이상의 줄거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웬도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르헨티나 거주 영국인이다. 웬도버마저도 “영국에서 10년에 걸친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웬도버는 철저한 영국인이 되었다”(28). 이렇듯 등장인물이 영국인이다보니 사건의 전개에서 황열로 고통받는 아르헨티나인의 생생한 삶이 스며들 여지가 차단되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렇다고 허드슨이 ‘서구중심주의’에 함몰되었을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영국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당시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다.

그[랄프 헨]는 고요한 아열대 스페인 도시를 기대했다. 스페인어권 아메리카의 일상을 그린 그림에서 항상 볼 수 있듯이, 챙이 넓은 파나마 모자를 쓰고, 권련을 피우며, 빈둥빈둥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발견한 것은 거대한 규모의 도시였다. 거리란 거리는 발길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물결로 가득차고, 옷차림은 런던 사람 못지않고, 용모에서는 일에 열중한 사람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 소음은 귀가 멍멍할 지경이었다.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마차는 화감암 포석 위를 천둥소리를 내면서 지나가고, 수많은 전차는 끊임없이 굉음을 내고, 신문 팔이는 고막이 찢어질 듯이 외치고, 그밖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서 도시는 북마전 같았다. 이에 비하면 런던의 심장부는 시골 마을처럼 평화롭고 고요했다.(14)

부에노스아이레스가 “거대한 규모의 도시”라거나 런던이 시골마을 같다는 허드슨의 묘사는 문학적 과장이다. 도심지의 규모나 인구로 볼 때,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런던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했다. 그러나 허드슨의 묘사에서 감지할 수 있듯이,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활기찬 도시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1860년대부터 급속한 도시화를 겪고 있었다. 유럽 이민자의 유입으로 1855년부터 1869년까지 이후 연평균 4.8%의 인구가 증가하였고(Maglioni 2009, 8) 국내외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육포 공장(saladero), 유지 공장(grasería) 등 육류 가공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거 환경은 열악해졌다. 1869년 현재 보카(Boca) 지역의 주택은 869채였는데, 한 채당 평균 7.8명이 거주하고 있었다(Barovero 2013, 15). 상하수도 시설은 엄두를 내지 못했고,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화장실도 재래식이어서 지하수를 오염시켰다. 게다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15개의 육포공장이 있었는데, 이들 공장에서 버린 동물 피와 내장 등 부속품으로 리아추엘로(Riachuelo) 강은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었다. 환경 오염과 인구 과밀은 대가는 전염병이었다. 1867년과 1868년에는 콜레라가 유행하고, 1870년에는 소규모이지만 황열이 발생한 적이 있으므로, 램프 현의 다음과 같은 우려는 당연했다.

이 거대하고 인구가 조밀한 도시, 평평한 평원에 세워진 도시, 그러나 배수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호한 해명조차 없고, 적절한 상수도 공급도 없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종의 전염병이 찾아올 것인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런던의 큰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48)

램프 현의 말을 들은 영국인 의사 코나브리(Conabree)는 “우리는 지금도 너무 바쁘다네. 자네가 젊어서 그래. 쓸데없는 걱정일랑 저멀리 날려버리게”(48)라고 대답한다. 황열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접한 웬도버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만 일간지가 27개인데, 그 신문들은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을 반쯤 미치게 만들어야 생존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76)라고 램프에게 반문하고, 황열은 “매년 여름이면 들려오는 오래된 절규”(78)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램프의

전염병 발생 우려에 대한 코나브리와 웬도버의 반응은 당시 아르헨티나 사회의 분위기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전염병의 발생은 연례행사처럼 종종 있는 일이었고, 신문은 자극적인 보도로 독자를 끌어들이기에 바빴다. 황열이 한창 유행할 때,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자랑하는 27개 신문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새로운 사망자를 그래픽과 함께 상세하게 보도”함으로써 패닉 상태를 방지하려는 당국의 노력을 좌절시켰다(80). 그러나 공정하게 얘기하면, 신문이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 것은 아니었다. 특히 황열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을 때, ‘공중위생 민중위원회’(Comisión Popular de Salubridad Pública)라는 시민단체 결성에 앞장섰고, 일부 언론인은 이 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보면, 황열이 유행한 1871년이라는 시점은 아르헨티나 경제 붐이 막 시작된 때였다. 1876년 이후에야 아르헨티나는 농축산물 수출의 호조로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유럽에서 이민자가 대량으로 들어오며, 경제 성장과 더불어 부에노스아이레스도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는 187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근대화되었기 때문에 1871년의 황열은 마치 까막득한 구시대의 불상사처럼 여겨졌다. 다른 한편으로, 1871년은 제1차 세계화가 닷을 올린 때였다. 전세계적으로 교역이 증가하고, 황열의 매개체인 이집트숲모기도 브라질을 경유하는 선박을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들어왔다. 아르헨티나 황열 사태는 제1차 세계화의 산물이었다.

2. 랐프 헨과 ‘공중위생 민중위원회’

황열은 치명률이 50%에 달하는 무서운 병이다. “황열병에 대해 상당히 많이 공부한”(76) 랐프는 웬도버처럼 피난을 가기는커녕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남기로 결심한다. 랐프가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의사로서의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다. 영국인 친구들과 어울려 카드 게임을 하다가 은행 잔고가 이미 바닥난 랐프의 바람은 의사 개업이었다. 의사로 개업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레티스의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랐프는 황열이 발생

하고 의료 체제가 붕괴되자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며칠 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답신을 받고 뿔 듯이 기뻐한다.

“닥터 헨, 닥터 랠프 헨” 랠프 헨은 수십도 더 되뇌었다. “독토르, 세뇨르 독토르 로돌포 헤르네(Doctor -el Señor Doctor Rodolfo Herne),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87)

이처럼 속물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랠프 헨은 곧바로 옷, 책, 수술 기구를 팔아서 가난한 동네에 집을 얻어 진료실을 열고, 철물점에 들러 황동 접시에 ‘닥터 헨’이라는 직함과 이름을 각명한다. 랠프 헨이 가난한 동네에 개업한 이유는 황열이 부자 동네인 산 텔모(San Telmo)에서¹¹⁾ 시작됐더라도 머지 않아 가난한 동네에서도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랠프의 예상 대로 황열은 가난한 동네를 덮친다. 그러나 상황은 유례 없는 비극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사람들은 쓰러져 몇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었고, 어떤 노력으로도 그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할 수 없었다. 그런 상황은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보다 더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역병이 휩쓴 고대나 현대의 도시는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거리를 쏘다니는 것이 보였다.(92)

그리고 병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죽었는지 이 불행한 동네에서는 황열이나 급사가 같은 것으로 보였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걷다가 포도 위에 쓰러져 헛소리를 내다가 실려갔다.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시신을 가득 싣고 비쩍거리며 지나가는 마차 소리가 들렸고, 마부는 거리로 돌아다니며 길고 음울한 목소리로 외쳤다. “시신을 내오시오.”(93)

랄프가 목격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지옥과도 같았다. “숭고한 용기와 헌신

11) 1871년 황열 사태는 처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산 텔모(San Telmo)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 지역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구역으로, 부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으로 환자들을 도와주는”(92) 위생위원회(Sanitary Commission)¹²⁾의 인력 지원을 받아도 몰려드는 환자 앞에서는 랠프는 의사로서 한계를 절감한다.

랄프는 이 지상 지옥의 중심에서 일했다. 새로 얻은 의사라는 직함, 황동 접시, 루비색의 등(몇 주 전만 해도 랠프를 기쁘게 하던 장난감)은 완전히 잊혀졌다. 랠프는 깨어 있는 시간의 반을 사경을 헤메는 사람과 보냈고, 밤이나 낮이나 공포에 질려 울며불며 사정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집집마다 끌려다니며 문자 그대로 끔찍한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로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고, 제발 살려달라는 아우성을 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94)

이제 랠프는 속물 근성이나 공명심에 찌든 인간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종종 ‘할 일이 많으면 좋겠다’고 바랐지만, 지금은 일에 치여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모두 돌봐줄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94-95). 황열로 죽어가는 인간의 고통을 목격하고 또 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황열이라는 병과 싸우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숭고한 인격체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헌신과 희생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활동을 치장하기에 앞서 “그가 할 일은 자신에게 남은 짧은 시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여겼다(102). 이제 랠프 현은 황열 극복의 영웅으로 재탄생했다. 이렇게 『렐프 현』은 일종의 성장소설 면모를 띠고 있다.

어느 면에서, 주인공 랠프 현은 황열 사태 당시에 활동하던 시민단체 ‘공중 위생 민중위원회’의 위원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작품 『렐프 현』은 민중위원회에 대한 오마주(hommage)로 읽을 수 있다. 1871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황열 환자들이 발생하여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었을 때, 에바리스토 카리에고(Evaristo Carriego)의 제안과 언론의 주관으로 설립된 공중위생 민중위원회에는 안토니오 아르헤리치(Antonio J. Argerich)를 비롯한 의사, 언론인, 법학자, 사제 등이 참여했고, 하부조직에는 프리메이슨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했다(Scenna 1974, 232). 랠프 현의 말을 빌리면, 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전염

12) 허드슨은 『렐프 현』에서 ‘공중위생 민중위원회’를 ‘위생위원회’라고 부른다.

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숭고한 용기와 헌신으로 환자들을 도와주다가 전투가 과열된 지점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병사처럼”(92) 활동함으로써 의료 공백을 매워줬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들 가운데 황열로 쓰러진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 아르헨티치 등 의사만 열네 명이 희생됐다. 비록 희생자의 면면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문학 작품을 통해 전형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허드슨은 아르헨티나 역사에 항구한 청동기념비를 세워놓았다.

3. 전염병과 대자연

『앨프 현』에는 황열을 바라보는 허드슨 특유의 시각이 드러나 있는데, 이에 관해 이야기하려면 조금 우회로가 필요하다. 허드슨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청년기에 읽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었다. 1859년, 그러니까 열여덟 살 때 영국에서 일시 귀국한 형이 건네준 이 책을 탐독한 허드슨은 매력과 거부라는 양가 감정을 경험했다. 허드슨은 자신이 수집한 아르헨티나 새에 관한 자료에 비춰볼 때 다윈의 진화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허드슨 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류마티스성 열)과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실존적 곤경은 다윈의 진화론 수용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자연주의자의 책 *The Book of a Naturalist*』을 펼쳐 허드슨의 말을 들어보자.

몇 년 동안 『종의 기원』의 가르침에 저항할 수 있었는데, 말하자면, 일종의 ‘생의 철학’과 결별할 수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만약 다윈이 옳다면 생의 철학은 논리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생의 철학이 없다면 삶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Hudson 1919, 214-215)

여기서 허드슨은 생의 철학이 무엇인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는데, 제이슨 윌슨은 “애니미즘, 즉 자연을 살아 있고, 주술적이고, 소통 가능한 실체로 경험하는, 오래된 의식으로의 회귀”라고 정의한다.(Wilson 1982, 56) 풀어서 얘기하면, 허드슨이 아르헨티나 팜파에서 생활할 때 경험한 자연과 무언의 소통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연의 소소한 변화는 무언의 메신저이다. 그리고 허드슨이 여러 글과 작품에서 이상적인 인간으로 상정한 원시인(primitive)은 팜

파에서 생활하는 가우초 같은 인간이 아니라 소설『녹색 거처』에 등장하는 주인공 리마(Rima)처럼 새(鳥)와 소통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갖춘 인간이다.

다른 한편으로, 허드슨은 넓은 의미의 진화론(다윈주의와 신다윈주의)에 발을 담그고 살았다. 한편으로는 “경쟁을 통해서만 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자연의 원칙이다. 어떤 종(種)이라도 경쟁보다 우선시하거나 지나치게 보호를 받는 즉시 퇴화가 시작된다.”(Hudson 1893, 82)라고 적자생존론을 펼치지만,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가넷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팜파의 새소리 대신에 고막이 찢어지는 기차 소리와 같은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유럽의 혐오스러운 저주받은 문명은 이제 영원히 소멸되었다”(Hudson 1923b, 168)고 말함으로써 영국으로 대변되는 산업화, 진보, 근대 문명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기도 했다.

반문명적 신비주의 면모와 조류 연구가로 진화론에 경도된 과학자의 면모를 지닌 허드슨의 이원적 사고는 작품『렐프 현』여기저기에 투영되어 있다. 이를테면, 황열이 휩쓸고 지나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거리를 허드슨은 이렇게 그리고 있다.

최근 몇 차례 가을비가 많이 내렸고, 도로의 넓은 포석(鋪石)은 마치 문질러 씻은 것처럼 깨끗하고 반짝거렸다. 그런데 거리에서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풀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어디를 보면 푸르고 연한 칼날이 화강암 작은 네모난 덩어리들 사이의 줄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이 보였다.(110)

황량하고 풀이 무성하게 자란 항구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쁘고 생기 넘치던 거리였는데, 이제는 조용하고 햇살만 내리쬐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마음 속에서 이상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보기에 풀과 거리의 황량함 또한 매우 호뭇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117)

인간의 발길이 끊기자 자연이 빠른 속도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이 즐거워하고 호뭇하게 여긴다는 얘기는 흔한 문학적 비유가 아니다. 랠프는 자기가 느낀 “이 새롭고 매혹적인 감각”(117)을 설명하려

고 테니슨의 시「로투스 열매를 먹은 사람들 Lotos-eaters」을 인용한 다음에, 테니슨의 시가 자신의 경험이 신비주의적인 의식 상태의 변화와 유사하다고 고백한다. 사실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서구와 중남미에서는 산업화에 실증주의에 대한 반발로 비교(esotericism), 심령술, 신지학 등 각종 신비주의가 유행했는데, 허드슨 또한 이런 신비주의적 조류에서 얼마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허드슨의 사고체계에서 보자면, 전염병은 인류가 감내해야 하는, 대자연(Nature)의 얼굴 가운데 하나이다. 바꿔 말해서, 황열과 같은 전염병이나 질병은 세계 어디에서나 어떤 사람들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르헨티나가 후진국이고, 아르헨티나인의 생활이 비위생적이어서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인류가 발전을 추구하는 한, 전염병은 감내해야 부작용 가운데 하나이다. 허드슨의 말을 빌리면, 전염병은 ‘대자연의 분노’이다.

어머니 같은 대자연의 품에서는 어떤 변화의 조짐도, 선회의 조짐도 없다. 대자연은 인간이 자연에서 멀어지고, 명령을 어길 때마다 인간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다가오는 대자연이 정말 무섭게 보이고, 우리는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자연은 사실 잔인하지 않다. 이 연약하고 파릇파릇한 새싹과 작고 흰 꽃들이 [...] 바로 대자연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평화의 메시지이다. 대자연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대자연의 분노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115-116)

이처럼 황열을 대자연의 분노로 여기는 허드슨의 질병관을 일러 ‘유사 환경주의’라고 이름 붙여도 좋을 것이다. 환경주의적인 측면과 아울러 신비주의적 측면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허드슨은 아르헨티나를 떠나기 전이나 떠난 후에도 이탈리아 이민자를 비난했는데, 그 이유는 이탈리아인이 “모든 새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자비한 적”(Hudson 1895, 229)이라는 것이었다. 허드슨의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는 대자연이 명령한 바를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19세기 후반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도시 또한 대자연

을 거스르는 인간의 구조물이며, 그런 위반에 대한 대가가 황열이다.¹³⁾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허드슨은 다윈의 진화론으로 대변되는 진보와 발전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언어를 초월한 신비주의적 교감을 통해 자연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고가 정합적이지 못하고 발전주의, 환경주의, 신비주의가 모자이크식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이런 모자이크식 사고는, 황열에 대한 허드슨의 관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허드슨은 황열을 예방 가능하고, 치료 가능한 병이 아니라 인간의 통제 영역 바깥에 있던 병으로 여겼다. 그렇다고 해서 천형(天刑)으로 간주하는 숙명론에 경도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는 진화론적 사고가 작동하고 있다. 전염병이 자연의 분노라면, 이런 분노에 직면한 인간은 더 나은 세계와 삶을 위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질병과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황열과 싸우는 일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거나 대중 요법이 고작이었다고 할지라도 랠프는 “내가 저 사람들을 구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들과 함께 죽을 수는 있다”(93)고 되뇌이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곤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결국 자기자신도 황열에 쓰러진다. 전염병이 대자연의 분노라면, 전염병과 싸우는 일은 인간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투쟁을 통해서 인류는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믿음을 『앨프 헨』의 마지막 구절에서 웅변적으로 토로한다.

두 사람[랄프와 레티스]이 결혼하고 16년이 지났다. 그 시대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엄청나게 변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인구는 수십만 명으로 늘었고, 과학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제는 런던이 대역병 시대로 돌아갈까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듯이, 부에노스아이레스도 1871년의 암울한 시절로

13) 이러한 허드슨의 관점에 대해서 프랑코는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허드슨은 목가적 삶을 파괴하는 주 요인을 야만과 폭력으로 상정할 뿐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결과물로 사고하지 않는다.”(Franco 1980, XLIII) 이런 역사성의 결여는 허드슨의 사고 체계에 본질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문명과 진보에 대한 허드슨의 생리적 거부하는 자연 파괴적인 현대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돌아갈까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평화롭고 번영을 누리는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끔찍했던 그때를 아직도 지워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때는 석 달 동안 파괴 천사의 그림자가 상큼한 이름[황열]으로 도시를 뒤덮었고, 매일 거둬들인 희생자들이 한꺼번에 늙거나 젊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를 가리지 않고- 공동묘지에 내던져졌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갈수록 빈번하게 밤과 같은 정적을 깨트리며, 마침내 거리란 거리가 황량하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던 때였다.(159-160)

IV. 결론

허드슨의 중편 『렐프 현』은 아르헨티나 근대사에서 망각된 시기에 대한 초상화이다. 1871년 황열 사태 이후 사르미엔토 정부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기로 결정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새로 만들고, 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하는 등 위생적인 도시로 만들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산 텔모와 같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쪽 지역에 거주하던 부자들은 북부 지역으로 이사와, 부자들이 떠난 빈집은 이민자들이 합숙소로 사용했다. 무엇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급속도로 팽창하여 이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렇게 황열 사태의 물리적 지표물이 사라지면서 1871년 황열 사태도 잊혀졌고, 역사는 1880년 이후를 아르헨티나의 근대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런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렐프 현』은 제1차 세계화가 궤도에 오를 무렵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황을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이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비록 문학적 형상화는 매우 미진하고, 또 영국인이라는 외국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허드슨은 렐프 현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1871년 황열 사태에 맞아 피신하기는커녕 정면으로 맞부딪혀 병으로 고통받은 사람들과 함께 싸운 저명인사와 무명의 봉사자들을 기리고 있다는 점도 결코 놓칠 수 있는 『렐프 현』의 의의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지만 『렐프 현』에서 문학적으로 구현된 허드슨의 질병관은 구시대적으

로 보일 뿐만 아니라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을 대자연의 분노로 보는 관점은 환경 파괴에 대한 경종으로 읽을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갖가지 형태의 신비주의적 현혹으로 빠질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 또 허드슨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랄프 헨』의 저변에도 문명과 진보와 대도시에 대한 거부 및 신비적 교감이 가능한 원시성(primitivity)에 대한 찬양과 진화론적 발전에 대한 믿음 사이에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한병철(2002),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02.
-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2018), 「내 희망의 크기」, 『또 다른 심문들』, 김용호·황수현·엄지영 옮김, 민음사.
- _____(2019), 『또 다른 심문들』, 정경원·김수진 옮김, 민음사.
- Barovero, Diego Alberto(2013), *Caudillos y protagonistas políticos en la Boca del Riachuelo*, Buenos Aires: Editorial Dunken.
- Borges, Jorge Luis(1974), *Obras completas 1923-1972*, Buenos Aires: Emece.
- Franco, Jean(1980), “William Henry Hudson,” *La Tierra Purpurea. Alla Lejos y Hace Tiempo*, Caracas: Biblioteca Ayacucho, pp. IX-XLV.
- Hudson, W. H.(1893), *Idle days in Patagonia*, London: Chapman & Hall.
- _____(1895), *The Naturalist in La Plata*, London: Chapman & Hall.
- _____(1916), *Far Away and Long Ago: A History of My Early Life*, New York: E.P. Dutton.
- _____(1919), *The Book of a Naturalist*, New York: George H. Doran.
- _____(1923a), *Ralph Herne*, New York: Alfred A. Knopf.
- _____(1923b), *153 Letters from W. H. Hudson, Edited and with an Introd. and Explanatory Notes by Edward Garnett*, London: Nonesuch Press.
- _____(1923c), *A Foot in England*, London: J.M. Dent; New York, E.P. Dutton.
- Hudson, Guillermo Enrique(1980), *La Tierra Purpurea. Alla Lejos y Hace Tiempo*, Caracas: Biblioteca Ayacucho.

- Jurado, Alicia(1971), *Vida y obra de W. H. Hudson*, Buenos Aires: Fondo Nacional de las Artes.
- Kohn, George Childs (ed.)(2018), *Encyclopedia of Plague and Pestilence: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New York: Facts On File.
- Lencina, Eva(2019), “W. H. Hudson en las lecturas de Jorge Luis Borges,” *Estudios de Teoría Literaria. Revista digital: artes, letras y humanidades*, Vol, 8. No 17, pp. 186-201.
- Maglioni, Carolina and Stratta, Fernando(2009), “Impresiones profundas. Una mirada sobre la epidemia de fiebre amarilla en Buenos Aires,” *Población de Buenos Aires*, Vol. 6, No. 9, pp. 7-19.
- Miller, David. (1990). *W. H. Hudson and the Elusive Paradis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Nogueira, Pedro(2009), “The Early History of Yellow Fever,” *Yellow Fever, a Symposium in Commemoration of Carlos Juan Finlay, 1955*, Paper 10.
- Pérgola, Federico(2014), “La epidemia de fiebre amarilla en Buenos Aires. Hitos y protagonistas,” *Revista Argentina de Salud Pública*, Vol 5. No 18, pp. 48-49.
- Scenna, Miguel Angel(1974), *Cuando murió Buenos Aires 1871*, Buenos Aires: Ediciones La Bastilla.
- Torricelli, Valentina(2017), *Somos lo que vamos siendo. Identidades italoargentinas en el Buenos Aires del siglo XXI*. Madrid: IELAT.
- Wilson, Jason(1982), “W. H. Hudson: The Colonial’s Revenge”, *Review: Literature and Arts of the Americas*, Vol. 16, No 31, pp. 53-59.

박병규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인문대학 3동 307-1호 라틴아메리카연구소
lapia@snu.ac.kr

논문투고일: 2020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20년 12월 17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24일

The Yellow Fever in Argentina and *Ralph Herne* of W. H. Hudson

Park Byong-Kyu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Byong-Kyu (2020), "The Yellow Fever in Argentina and *Ralph Herne* of W. H. Hudson,"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1(3), 143-162.

Abstract The coronavirus pandemic, known as Covid-19, has a profound influence on every aspect of our life. In this situation, it is meaningful to revisit the literature that dealt with past experience of infectious diseases, which is similar to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This article analyzes W. H. Hudson's *Ralph Herne* that featured an epidemic of yellow fever in Argentina in 1871.

In the text, Hudson points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of Buenos Aires in the era of first globalization as the cause of the spread of yellow fever. It honors those who bravely fought against yellow fever by depicting the devoted activities of an English doctor named Ralph Herne.

Hudson, who was critical of european civilization and development, understands the yellow fever as Mother Nature's fury from the perspective of pseudo-environmentalism. Still, Hudson does not lean toward fatalism. This attitude shows his belief that human beings have developed by overcoming such obstacles as epidemic or pandemic.

Key words yellow fever, Nature, Hudson, Ralph Herne, pandemic, Argentina